

불리할 것 없는 현역들... 선거구 획정 '느긋'

정계특위 활동시한 D-1... 여야 원내대표 회동 또 결렬 처리시한 한 달 넘겨... 정의화 의장 '특단 조치' 관심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 기준과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15일)이 13일로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야는 정계특위 차원에서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전날 김부성·문재인 대표와 원우철·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답판을 시도했지만 약 2시간에 걸친 회동에서도 타협안을 만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계특위 활동 종료 시한까지도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별 인구편차 축소(3대 1 이내→2대 1 이내)로 5개 이상 시·군

이 한 지역구로 묶이는 기형적 선거구가 생기는 것을 막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려면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현행 제도인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안과 농어촌 의석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 7석을 늘린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안을 각각 분회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 의원들의 선택을 받자고 제안한 상태다. 지역구 7석 확충(비례대표 7석 감축)은 정계특위 내에서 새정치민주연합도 '비례성 강화'를 전제로 찬성한 만큼 사실상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식을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가 불가피하다더라도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

인 비례성 강화와 사표 방지를 위한 지역구 특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이 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정당득표율의 50%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보장하는 이병석 정계특위 위원장의 중재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소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최소한 절반은 실제 의석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른바 '이병석안(案)'을 적용하면 지난 19대 총선 기준으로 5석을 손해 본다는 새누리당의 지적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 김태년 정계특위 간사는 "새누리당 2석, 새정치연합 2석씩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전날 브리핑에서 반박했다.

애초 지난 8월31일로 정해졌던 정계특위 활동 시한은 선거구 획정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자 지난달 15일, 오는 15일로 두 차례 연장됐으며, 그러는 사이 선거구 획정 국회 처리시한(11월13일)은 이날로

정확히 한 달을 넘기게 됐다.

여야는 정계특위 활동 시한 종료에 앞서 한두 차례 더 답판을 지을 예정이지만, 활동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 외에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처럼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도 대다수 현역 의원에게도 결코 불리할 게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오히려 15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정치 신인이나 원외(院外) 인사들이 연말을 넘기면 후보자직이 무효가 되는 만큼 곤란한 처지에 놓인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협상 지연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면서 오는 15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특단의 조치에는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룰' 안갯 속 막오르는 총선 레이스

내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5000만원까지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재래시장, 길거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적은 선거 운동용 명함을 직접 배부하거나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본인이 전화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후보자 때를 포함 최대 5차례), 이메일 등을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보내는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출마 지역구 전체 가구의 10%의 범위에서 신고 후 요금 별납의 방법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도 허용된다.

선관위 집계 따르면 18대 총선에서 484명에 불과했던 예비후보자는 19대 총선에선 1054명으로 늘어 20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준영 신민당, 경기도당 창당

첫 시·도당... 이달 내 5개 시·도당 추가후 중앙당 창당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가 창당을 주도하는 (가칭)신민당이 지난 12일 경기도당을 창당했다.

신민당은 이날 수원 리젠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경기도당 창당대회를 했다. 신민당의 시·도당 창당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당준비위원장인 박 전 지사는 이날 대회에서 "제가 지난 7월 떠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당내 싸움뿐"이라며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신민당 창당) 과감히 결단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과 지역이 대립한 것이 40년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있는 자와 없는 자, 알자리를 두고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가 갈등을 빚고 있다"며 "자유, 민주주의를 쟁취한 지도자들의 정신을 이

어 신민당은 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불신으로 정권교체 능력을 상실했다"며 "신민당은 기본정신을 위민(爲民), 위국(爲國), 위족(爲族)에 두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며 따뜻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경기도당에 이어 경북도당 등 전국 5개 시·도당을 이달 내에 창당한 뒤 중앙당을 창당할 예정이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유한열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고문, 김필재 고양시의원과 발기인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임내현 의원 지역구예산 100억 확보 빅데이터와 지방행정혁신 세미나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은 내년도 지역구 예산 100억7800만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광주 산업발전을 위한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 구축사업비 10억원, 차세대 광학도플렉스공정 및 시제품 제작기반 구축 사업비 15억원을 증액했으며, 북구 임동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45억원을 신규 확보했다. 전남대 후문상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6억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9800만원도 확보했다.

또한 광주시 교부금 6억3000만원을 확보해 가로등 교체 사업, 용전동 농로포장 사업, 4개 초등학교 앞 음성보행안내 시스템 설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임 의원은 지난 11일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디지털정책학회, 스마트미디어학회, 조선대 지식경영연구원 공동 주최로 '빅데이터와 지방행정혁신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향후 빅데이터 산업이 미래성장 산업이라는 사실이 부각됐고, 민간 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 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회의(가칭) 창당추진위원회'가 1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 천정배 창당준비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왼쪽)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불안·불공정·불평등 없는 '3不 사회' 만들 것"

'국민회의' 창당발기인 대회... 천정배 창준위원장 선출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13일 (가칭)국민회의 창당발기인 대회를 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발기인대회에는 발기인을 포함한 내외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당명 채택, 발기 취지문 발표,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을 위한 규약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천 의원은 (가칭)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천 의원은 대표자 연설을 통해 "지금 야당은 '자기 한 몸 잘 먹고 살겠다는 자영업자'라고 불리는 것조차 과분하다"며 "오늘은 이미 망하고 죽은 야당의 사망선고이자 진정한 야당이 태어나는 생일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 죽은 야당을 같이 치우는 선거혁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선거혁명이란 국민이 주인이 되어 독점·독식을 물리치고 상생 협력의 새 길을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칭)국민회의 창당발기인 868인은 발기 취지문을 통해 "(가칭)국민회의를 '확고한 개혁적 가치와 노선에 기반한 강한 정당, 승리하는 정당, 기록권에 걸연히 맞서는 정당, 정치혁명을 이끌 정당'으로 만드는 한편, 불안·불공정·불평등의 '3불 사회'의 병폐를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기인대회에는 김성호·김종배·유원일·염동연·장세환 전 의원 등 발기인 560명과 새정치연합 정대철 상임고문과 유성엽 의원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의당, 광주서 총선 승리 전진대회

정의당이 내년 4·13 총선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열었다.

정의당은 지난 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심상정 당 상임대표와 내년 전국 총선출마예정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보고 및 총선승리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혁재 당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정의당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 ▲국민모임 등 4개의 진보세력이 하나의 당으로 통합했다는 통합보고회를 가

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통합보고회 직후 나주 중흥골드스파로 자리를 옮겨 심 대표의 총선전략 특강을 들었다.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 대표는 "진보정치를 처음 일구던 15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 일하는 시민과 우리 사회의 낮고 작은 목소리를 위해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자"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정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빛고을새마을금고